

제2차 한카포럼 요약 보고서

2011. 9.

2011년 8월 23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 2차 한국-카자흐스탄 포럼의 개최의의 및 성과 그리고 각 세션에서 다루어진 주요 토의내용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보고서임

목 차

I. 개최의의 및 주요성과	1
1. 개최의의	1
2. 주요성과	2
II. 주요 토의내용 요약	4
▪ 개회사 (전문)	4
▪ 축 사 (전문)	9
▪ Session I: 한-카 외교정책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12
▪ Session II: 카자흐스탄 산업다변화의 한카경제협력	28
▪ Session III: 문화,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전략 협력	48
III. 행사개요	64
1. 취지 및 목적	64
2. 주관기관	64
3. 지원기관	64
4. 진행	64
5. 프로그램	65
6. 참가자 명단	68
7. 한카포럼 사무국	70

I. 개최의의 및 주요성과

1. 개최의의

-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를 맞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카자흐스탄 포럼(이하 한카포럼)은 2009년 5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내실화하는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의 역할을 하였음.
- 제2차 한카포럼 역시 8월 25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회담의 공식 의제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IT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양국 간 관심사항에 대해 양국 관료, 정치가, 학자들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다 결실 있는 양국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금번 포럼에는 니그마툴린(Nigmatulin) 누르오탄 당(카자흐스탄 집권 여당) 제1부총재, 사리바이(Sarybai) 외교부 차관, 작살리예프(Dzhaksaliev) 산업신기술부 차관, 오룬하노프 (Orunkhanov) 교육과학부 차관, 바이카다모프 (Baikadamov) 누르오탄 당 의회발전연구소장 등 카자흐스탄 고위급 정관계 인사들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직속 산하 국책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인 카자흐스탄 전략문제연구소의 술타노프(Sultanov) 소장 및 도도노프(Dodonov) 선임연구원 등 유력한 정·관계, 학계, 업계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음.
- 이번 포럼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제1차 한카포럼에 이어 한-카자흐스탄 관계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로 그 결과가 이틀 뒤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한카정상 회담 직전에 양측 대통령에게 보고됨.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정책포럼으로서 한카포럼의 위상 제고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산업 다각화 및 인프라 투자협력과 자원 협력이 보다 가시화된다면 양국 간 경제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양측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음. 이런 맥락에서 이번 포럼의 중요 의제였던 '한국-카자흐스탄 간 전략적 협력 관계의 발전 방향과 실행 메커니즘'은 양국 협력관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 라는데 양측이 공감하였음.
-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간 교류의 질적 발전과 제도적 틀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특히 양국 국민의 이해 증진이 미래 지향적 한카 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을 공감하였음.

2. 주요성과

- 한국 정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부 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앙 아 협력 포럼과는 별도로 지역이 아닌 개별국가 차원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최초의 정부, 관계, 민간 공동 참여 회의체로 2010년 서울에서 출범 하였던 제1차 한카포럼에 이어 제2차 회의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성공 적으로 개최됨으로써 한카포럼 정례화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양국 간 지속적 인 대화의 창구가 제도화되었음.
- 금번 포럼에서는 제1차 한카포럼 이후 양국이 성취한 양자관계의 발전 상황 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동시에, 한카 관계의 한 단계 격상을 위한 전략적 분 야로서 외교·안보 협력, 교역·투자 협력, 자원·에너지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및 교육 분야 교류에 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었음.
- 정치외교 부문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측은 서로의 국제사회에서의 높아 진 위상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체적인 내 실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 함.

-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핵확산, 국제테러리즘, 초국가적 범죄 등 현대 국제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 증진 및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 2011년 4월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에 이어 2012년에는 카자흐스탄 총선, 한국의 대선 및 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들이 모여 있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미 재선에 성공하였고 내년 총선에서도 누르오타 당의 집권이 확실시되는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한국의 정세는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이에 관계없이 양국 간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
- 경제 분야(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IT)에 있어서 카자흐스탄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및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는 점에 양측 모두 공감.
- 2010년 1월 발효된 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 관세동맹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와 유라시아 경제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대는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의 관문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임을 강조.
 - 한국의 향후 대 카자흐스탄 교역에 있어서 완제품 수출보다는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주요 혁신 산업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 최근 중국의 진출을 고려할 때 분과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
-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간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측 국민의 상호 이해 및 국가 이미지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 문화 교류 역시 지금까지처럼 각자의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방식이 아닌 쌍방향적 이해와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문화원 및 언어 교육원 같은 제도적인 틀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더불어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양국 간 교육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

II. 주요 토의내용 요약

|개회식|

[개회사] - 전문

● Nurlan Z. Nigmatulin 카자흐스탄 Nur Otan당 제1부총재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에서 오신 귀빈들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 제1여당인 “누르오탄”당의 총재이신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님의 정책들은 한카 양국간의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저희 양 정당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석자 여러분,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먼저 “누르오탄” 국민민주당을 대표하여 이렇게 뜻 깊은 대화의 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공동 개최하신 한국의 동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카작 독립 20주년을 목전에 둔 오늘 이루어진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포럼이 한카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님의 카자흐스탄 국민방문 시 에너지, 교통, 건설 및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문건들이 체결되었습니다. 작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도 석유가스, 석유화학산업, 기계생산, 원자력 에너지 및 건설 분야의 23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

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진행된 카자흐스탄의 해가 성공리에 진행되었고, 바로 그 때 한카포럼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카작인들이 카자흐스탄 내 한국의 해 행사들을 통해 우리와 친근한 한민족의 풍부한 문화를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서로에게 각별한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10만 고려인들 덕분일 것입니다.

고려인은 카작 사회에서 가장 잘 통합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주권국가로서 첫 발을 내딛었던 어려운 시기에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자신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들 덕분에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간 이해와 평화의 모범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정이야말로 한카 전략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결정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알타이는 카자흐스탄 문화와 역사의 원천인 투르크 문명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민족 형성에 있어 알타이 원시 부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학설 또한 존재합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한국어에 아직까지 터키어족 단어가 사용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전략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호혜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신아시아 외교”라는 점 또한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명실상부한 역내 리더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앙아시아의 소득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합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 틀로써의 OSCE 역량 강화, 이슬람국가연합 활동의 개혁, 국제무대에서의 CICA와 SCO 지위 강화 등의 이니셔티브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역내 안보와 협력 강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세계와 유라시아 사이의 잇는 전략적 교량으로써 이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한카양국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반기문 전 외무부 장관이 UN 사무총장 2차 선거에서 승리해 UN을 이끌고 있는 것과 그를 보좌하여 카자흐스탄 전 외무부 장관이었던 카숨 조마르트 토카예프 UN내 유럽 분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속도로 2025년까지 세계적인 최상위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국정 효율성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40년도 채 되지 않는, 단 한 세대만이 활동했을 법한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고, 세계경제의 엘리트로 거듭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혁신 산업정책 및 기술 현대화 분야에서 매우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분야의 협력을 통해 학술 및 기술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업 경영 시스템 개선 및 “전자 정부” 발전 정책 역시 눈 여겨 볼 가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민족의 지도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님의 제안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가 혁신산업발전 정책을 채택한 현 상황에서 한국의 고유한 경험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절실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좋은 기반, 즉 한카 양국 간의 전략 파트너십이 존재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빠른 카자흐스탄 경제 현대화와 다변화는 사회분야의 현대화, 특히 교육 및 보건 분야의 현대화를 동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프라 기반을 전폭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 파트너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방안을 총망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경제 분야에서 한카 양국의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할 수 있는 호의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험과 기술이, 카작은 풍부한 자원과 분명한 활동 전략이 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 330개 이상의 한카 협력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삼성, 엘지전자, 현대, 리텍스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회사와 은행들도 역동적으로 카작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양국 교역량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양국의 전략 파트너십 강화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르술탄 아비셰비치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정치적 신념하에 정당 간 협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누르오탄당”은 집권여당이자 국가성공을 이룬 당입니다. 우리 양당을 연결하는 것은, 자국을 한 단계 높은 발전단계로 올리고자 하는 공통의 열망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협력 의정서 체결 이후 우리 양당의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당간의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님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서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되셨습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누르오탄” 총재님께서도 올해 4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확고한 승리를 거두며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누르오탄” 국민민주당을 대표하여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한카 양국 국민들의 우정을 돈독하게 할, 내실 있는 토론과 새로운 제안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김달중 서울국제포럼 회장

금년, 2011년은 카자흐스탄이 독립한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한국 측 포럼 대표단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2011년은 ‘한국의 해’로 한국을 널리 알리며, 양국간 우의와 친선을 폭 넓게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째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에 앞서 제2차 포럼을 오늘 이곳 아스타나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가자 여러분,

지난 해 2010년 4월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의 해’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1차 한국-카자흐스탄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제1차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양국간 정치·외교, 경제, 문화 분야에서 주요 협력과제와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포럼 참석자들은 정치·외교 협력에 있어서 정치지도력의 의지와 견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동시에, 현 양국 정치지도력의 비전과 의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양국 정당 간 협력의 중요성과 의원외교의 활성화가 강조되었습니다.

둘째, 양국은 외교정책 목표와 기조가 서로 유사하고, 상호 믿을만한 파트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중견국가로서 서로의 지정학적 및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주요 국제기구 에서나 글로벌 회의에서, 그리고 지역다자안보 체제에서 역할을 확대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할 것을

논의 했었습니다. 니그마툴린 부총재께서 국제적 리더십의 철학과 정신으로 강조하신 4T, 즉 신뢰(Trust), 전통(Tradition),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관용(Tolerance)에 대하여 참석자들은 많은 감명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셋째,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양국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친근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더욱 더 증진 할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양측 참가자들은 한국의 개발경험의 유효성을 감안하여 ‘카자흐스탄 2030’ 프로그램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자원, 산업·건물 인프라, IT·인터넷, 금융, 중소기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배가 할 것을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포럼에서도 두 나라의 국내적 과제와 국제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두 나라 간 문화적 친근성은 물론 경제적 공동이익과 보완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협력에 있어서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창출 해 내고, 더 많은 협력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포럼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한-카자흐스탄 포럼 준비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주최 측, 누루 오탄당과 누르란 니그마툴린 제1부총재님,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산하 전략문제연구소 Bulat Sultanov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또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엄구호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 전문 -

● 사리바이 외교부 차관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만남이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카자흐스탄 방문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습니다. 한카 양국의 전략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에너지, 가공 산업, 첨단 정보 기술, 농업, 문화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정상 간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협력 전반에 있어 큰 기폭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국 국민들과 정상간의 따뜻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다양한 분야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각 부처 및 재계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협력의 깊이와 폭을 넓혀주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포럼을 통해 한카 정당간의 관계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역 분야에서도 한카 양국 간의 협력관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는 300개 이상의 한카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 투자액은 34억 달러에 달합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및 아스타나, 알마티 주택건설 프로젝트, 줍불 지역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 카자흐스탄 내 완제품 생산 합작회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문화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지정된 카자흐스탄의 해와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지정된 한국의 해 행사들을 통해 양국 국민들간의 정신적인 친밀도가 두터워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설정은 다양한 협력활동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세계화 추세가 강화되는 오늘,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을 지원하며, 환경 보호와 기타 다양한 역내 및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양국 간의 대규모 협력과 상호 원조가 양 정당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카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황진하 제18대 국회의원**

한국-카자흐스탄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뜻 깊은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신 한국-카자흐스탄 포럼 김달중 회장님, 누르오타당 니그마투린(N. Z. Nigmatulin) 제1부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부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앙아 협력포럼과는 달리 민간 주도의 한-카자흐스탄 포럼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정의용 사무총장님과 함께 「(사)국회아시아정당국제회의 의원연맹(ICAPP Parliamentarians' Union)」 회장 자격으로 제5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카자흐스탄 누르오타당 인사 및 정부 고위 인사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발전모습과 날로 격상되는 국제적 위상을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 8월 해외 정당과는 최초로 카자흐스탄 누르오타당과 정당 간 의원외교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양해각서(MOU) 체결하였고, 현재 정당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의정서(Protocol)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의원외교 활동 분야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한국과 카

카자흐스탄 양국 간 상호발전을 위해 집권 여당 간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자원부국이며, 중앙아시아 내 대한민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입니다.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양국은 국가 간 그리고 국제적 무대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은 에너지·자원 탐사 사업을 위한 공동회사 설립에 합의하여 2009년 8월부터 탐사작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중소형 원자로 건설, 우라늄 도입 및 개발, 건설·인프라 구축, IT 분양 등 다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을 비약적으로 확대 및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협력동반자국(ACD: 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등을 통해서 양국 협력관계를 증진 및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다민족·다종교 사회의 모범국가로서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계종교·문명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세계종교지도자회의」를 출범시키고 3년 주기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관계 발전은 오는 4월 21일~23일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국민 방한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양국 관계의 발전을 기념하고 양국 국민의 인식 확대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2010년을 '카자흐스탄의 해'로 지정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2011년을 '한국의 해'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정계,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카자흐스탄 포럼은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국가관계로 발전하는 기회를 창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적인 한-카자흐스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이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 Session I : 한국-카자흐스탄 외교정책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

[발제 I-1] 한국-카자흐스탄 전략파트너십으로서의 협력 방안

Bulat K. Sultanov (카자흐스탄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한국-카자흐스탄 관계 발전의 현황

-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외교 관계 수립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급진전된 놀라운 사례
-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2010년 4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함께 한국-카자흐스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발전 본격화됨: 정례화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됨
- 양국 간 전략적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특히 한국의 기업가들이 카자흐스탄 경제의 산업다변화, 첨단 정보기술, 농업,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카자흐스탄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 양국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적대적이었던 적이 없음
-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존재: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음
- 양국 국민들이 아시아적 문화와 가치를 공유
-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을 가짐: 카자흐스탄에 있어 한국은 원자재 수출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은 한국 전자제품의 수출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한국 기업들은 카스피 해 대륙붕 원유 개발, 건설, 교통장비 및 인프라, 정보 통신 컴퓨터 기술 분야, 한카 중소기업인 협력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대외정책 우선 과제가 매우 유사: 예를 들어 핵무기 비확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역내 평화와 안정 문제에 동감
- 양국 관계 발전을 위협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없음

■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 석유, 가스, 석탄, 유라늄, 희금속 등 카자흐스탄의 무한한 천연자원.
- 서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과 통신의 가교역할.

- 카자흐스탄의 발전된 경제와 고급인력. 특히 120,000명에 달하는 고려인.
- 지역 및 국제 경제의 책임 있는 참여자로서 높아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2011년 이슬람회의기구(OIC) 외교장관회의 의장국.

■ 카자흐스탄의 한국 및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이유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2020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빠른 산업화, 농업 및 산업 다각화,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러한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 카자흐스탄은 비원자재 부문에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카자흐스탄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산업혁신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은 외국인 투자에 달려 있음.

●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외교 협력

-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정책은 공동의 가치 및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음. 즉 핵비확산체제 강화, 국제테러리즘과의 전쟁, 종교적 극단주의, 지역분쟁 등을 포함한 국제 관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 공통되고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북한 핵문제를 대하는 한국의 평화와 번영의 정책에 지지를 포함.
- 카자흐스탄은 OSCE 의장국으로써 4월 26-27일, 알마티에서 이틀 간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의 다자협력과 OSCE 경험에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회담 개최. 주요 논점은 1)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협력 조장 대책, 2)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 강화, 3) 동북아시아 NPT 체제에 의한 핵무기 비확산조치 강화 대책.
- 2005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세계무역기구(WTO) 하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또한 2006년 한국은 CICA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2009년에는 카자흐스탄이 OSCE 의장국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였음. 이에 카자흐스탄은 반기문을 UN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 카자흐스탄은 CICA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자원봉사자 인질들의 석방을 요구.
- 2004년 9월 1일,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초청장 및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단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27번째 국가가 되었음.

- 한국 외교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일본, 중국, 인도 및 러시아와 무역, 에너지, 환경보호 등에서의 협력 강화임. 카자흐스탄 또한 이들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음.

o 향후 한국-카자흐스탄 관계 발전의 전망과 과제

- 2010년 1월 성사된 카자흐스탄-벨로루시-우즈베키스탄 관세 동맹으로 인해 1,600만 시장이 유라시아 단일 경제권역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 대 카자흐스탄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의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음.
- 전체 한국-중앙아시아 교역량에 비교할 때 한국-카자흐스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한 수준: 한국-우즈베키스탄 관계의 경우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의 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음. 이에 반해 카자흐스탄에 있어 한국은 유망한 원자재 수출 시장이며 한국에 있어 카자흐스탄은 유망한 전자제품 수출 시장
- 북한 문제를 포함하더라도 한국-카자흐스탄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외부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대내적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2011년 4월 3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재선에 성공하였고 2012년에 있을 카자흐스탄 총선에서도 누르오타 당이 승리할 것으로 기대. 이에 비해 2012년 한국의 대선 및 총선에서 현 정권이 유지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력과 관계의 발전은 지속되기를 희망. 이에 한카포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언론 매체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나 최근의 금융위기 및 키르기스스탄 사태 등 중앙아시아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 등이 양국 경제 관계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중국 서부를 연결하는 석유·가스관이 완공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막대해지면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상황일수록 한국 기업들의 역동적인 자세와 역할이 필요. 양국이 공동의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분야에 한국이 선점하는 것이 중요.

[발제 I-2] 중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대응
고 재 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환경

○ 지역협력에 대한 공통의 목표와 상이한 전략

● 카자흐스탄

- 독립 후 실리추구의 전방위 외교 전략 아래 실용적 대외개방노선과 진보적 경제·통상 정책을 통해 역내외 국가들과 우호 협력 관계 심화.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CSTO, SES, EURASEC, SCO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러시아 및 중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
- 미국, EU, 중국, 터키, 일본 등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국제적 지위 향상 및 대 카자흐스탄 투자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실용주의적 노선 견지
- CICA 창설 주도를 통해 역내외 국가들과 범아시아 차원의 양자 또는 다자 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옴.

● 키르기스스탄

- 친러 정책 견지 속에 실리추구의 대서방 외교 중시하는 전략 유지.
- 지역 협력에 적극적: CSTO, EURASEC 등 러시아 주도의 CIS 내 다자안보·경제협력에 적극 참여.
- 미국, EU 등 서방세계와의 우호 협력관계 발전.

● 우즈베키스탄

- 독립 후 역내 강국으로 군림하려는 중앙아 우선주의 및 탈러 외교전략 추진.
- 지역협력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 러시아 주도 CST 참여하였다 탈퇴 ⇨ 반러성향의 GUAM에 참여하여 NATO와 협력관계 강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미국에 군사기지 제공 ⇨ 2005년 안디잔 유혈사태 및 인권유린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키르기스스탄 시민혁명 이후 탈미·친러 외교 전략으로 전환 - 2005년 7월 자국 주둔 미군 철수 요청, 반러성향의 GUUAM 탈퇴, 11월 러시아와 안보동맹조약 체결, 2006년 CSTO 재가입.

● 타지키스탄

- 독립 직후 발생한 내전(1992~97)에 따른 안보위협 및 경제난으로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러시아 주도의 CSTO, EURASEC, SCO 등에 적극 참여, 러시아와 군사협력조약 체결하고 러시아군의 반영구 주둔 합법화.
- 미국, OSCE, EU 등과는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 유지, 이들 서방세계 및 국제기구의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 전략 구사.
- 자국의 경제관계 다각화를 위해 역내 최대 물 공급국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물 관련 지역협력에 적극적. 키르기스스탄과 유사하게 자국의 취약한 국력을 지역협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극복하려는 정책.

● 투르크메니스탄

- 독립 후 CIS에 가입하고 NATO-PFP, OSCE, EU 등과의 협력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CIS 차원의 각종 다자 안보 및 경제협력체에는 불참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중립정책을 외교 전략으로 채택. 이러한 전략은 역외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
- 투르크메니스탄 생산 석유 및 가스 대부분이 러시아 경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되는 이유로 러시아와 우호 협력관계 유지. 최근 가스 수출선의 다변화를 위해 EU, 중국 등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추진.

○ 주변국들의 대 중앙아 지역협력 정책

●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 소연방 붕괴 후 친서방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중앙아 정책 등한시됨. 1996년 다극화된 국제질서 및 유라시아주의를 중시하는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중시되기 시작하여 푸틴 정권 하에서는 중앙아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강화 정책이 적극 추진됨.
- 러시아의 대 중앙아 지역협력 외교정책 목표
 - (1)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안정 유지
 - (2) 중국, 인도, 이란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연결로의 최대한 활용
 - (3) 역내 국가들과의 단일 경제공간의 유지
 - (4) 중앙아시아의 지전략적 잠재력의 활용
 - (5)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역내외 국가들의 인정 획득

● 미국

-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안보, 에너지, 국내 개혁이고, 외교 정책목표는 민주화, 시장경제의 도입, 내부 개혁 지원, 역내 테러리스트 위협의 제거 등.
- 2001년 9·11사태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계기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전진정책 추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공군기지 임대
- 그러나 NATO-PFP 프로그램과 OSCE, 그리고 국제경제기구를 통해 중앙아 국가들과 다자 협력을 추지해 온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역내 차원의 다자지역협력은 부재한 상황.

● 중국

- 중앙아시아를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
-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핵심적 외교정책 목표: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지주의 운동 억제를 통한 국가 통합성 유지, 석유·가스 공급지 확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정책 무력화 등.
-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SCO, CICA를 다자 차원의 지역협력체로 활용. 최근에는 중앙아 역내 국가들과 가스관, 송유관 건설을 통한 에너지 협력 확대.

● 일본

- 2004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장관급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를 추진: 일본의 대 유라시아 외교의 중앙아시아 축소판인 '실크로드 외교'의 한 수단으로 일본과 중앙아 국가들 간의 양자관계를 증진시키고 역내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본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개혁 등을 의제에 포함시키면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EU

- TACIS (CIS에 대한 기술지원): 소연방 붕괴 후 CIS의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12월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중앙아 5개국 모두 참여.
- PCA (동반자 협력 협정): 1995년부터 EU가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맺은 양자 차원의 정치·경제·외교 협력.

o 공유 자연자원의 관리 및 빈곤 문제

- 수자원 문제: 수자원의 우선적 이용, 즉 식수, 관개, 산업용수, 전기생산 등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하고 있음.
- 천연자원:
 - 송유관 및 가스관 노선 문제가 카스피해 지역보다는 심각하지 않으나 최근 들어 중국이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및 에너지 광구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러시아와의 갈등 노정.
 - EU 역시 Nabucco 가스관 사업 추진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미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이 큰 실정.
- 빈곤문제:
 - 하루 2.1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21% 이상, 우즈베키스탄 - 47%, 타지키스탄 - 65%, 키르기스스탄 - 70%
 - 큰 도농 격차: 공통적인 사회 문제.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현황

o CIS 국가들과의 다자 지역협력

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 1992년 5월 15일 창설된 CST를 2002년 CSTO로 개칭.
- 가맹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 주요 목적: 평화보장, 가맹국의 영토보전, 테러/마약밀매/국제적 조직범죄와의 전쟁에서 공조, 군사위협 직면 시 즉각적 군사지원.
- 장기적으로 지역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와 관세동맹

- 2000년 10월 출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이 서명.
- 2006년 1월 우즈베키스탄 가입함으로써 현재 가맹국 6개국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는 옵서버).
- 우선적 목표: 무역, 경제, 사회, 인도주의, 법 등의 분야에서 국가 이익과 공통

적인 이익의 균형을 최대화하면서 가맹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창조하는 것.

- 장기적 목표: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공간의 확립. 2010년 1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관세동맹 체결, 동년 7월 1일 경제통합 위해 국경지역 세관 철폐. 현재 키르기스스탄 가입 추진 중.
- EURASEC은 CIS의 가장 중심적인 다자 경제협력체로 발전해 갈 것.

○ CIS 외 국가들과 다자 지역협력

가. 상하이 협력기구(SCO)

- 2001년 6월 15일 창립된 국가 간 국제기구
-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으로 구성 (이란, 몽골, 인도, 파키스탄 등은 옵서버로 참여).
- 목표: 가맹국간 상호 신뢰, 선린·우호 협력의 강화, 정치문제,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 증진, 지역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 민주주의, 정의, 합리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구축 촉진 등.
- 안보협력: 911 테러 사태 후 안보협력 강화. 즉 SCO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진정책을 저지시키고 역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
- 경제협력: 2001년 9월 알마티에서 SCO 정부수반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경제협력을 토의한 후 지역 경제협력의 기본 목표와 방향 그리고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망록이 채택. 2002년에는 경제·통상 협력 및 교통협력을 확대, 심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의 하나로 해당 분야 각료급 회담을 구성하기로 합의. 최근 들어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면서 포괄적 다자 지역협력체로 발전하고 있음.
- SCO는 유라시아 지역 내 다자 지역협력체중 가장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 발전. 국력차가 큰 국가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안보갈등과 이해를 극복하고 포괄적 다자 지역협력기구로 발전.

나. 아시아 대화 및 신뢰구축조치회의(CICA)

- 1992년 10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아시아판 OSCE형 다자지역협력체'를 제안한 이후 전문가 회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정상회의로 확대

발전됨.

- 현재까지 두드러진 성과 내지 못함. 그러나 지역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가맹국으로 이루어진 CICA는 정기적으로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담, 고위급 회담 등을 개최해 오면서 가맹국간 그리고 읍저버 국가들과 아시아가 당면한 포괄적 안보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가맹국간 신뢰구축에 기여.

■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지역협력

가.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지역협력체 (그루지야, 터키, 우크라이나가 읍저버로 참여).
- 목표: 국가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단일 경제공간을 확립하는 제한적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던 CACE가 CACO로 개편되면서 역내 경제통합의 발전, 정치·사회·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의 확대 및 심화와 같은 일종의 포괄적 협력을 추구.
- 2004년 5월 러시아의 CACO 가입과 더불어 성격변화 ⇨ 2005년 10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담 이후 EURASEC과의 통합 추진.

나. '핵무기 없는 중앙아시아'(CANWFZ)를 위한 지역협력

- 1993년 9월 유엔총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이 제안 ⇨ 2006년 9월 8일 'CANWFZ 조약' (소위 '세미팔라틴스크 조약') 체결 ⇨ 2009년 3월 21일 발효.
- 중앙아시아 영공 및 영토 내 핵무기 배치 및 실험 금지. 소련의 핵무기 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지역 복원 노력 공동 추진. 가맹국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다.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지역협력

-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수자원 관리와 이용을 둘러싼 갈등 지속.
- 2009년 4월 28일 알마티에서 '물 정상회의(Water Summit)' 개최: 아랄해 문제 및 초국가적 수자원 관리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
- 역내 국가들 간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 보유량의 현실적 격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음.

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CAREC)

- 1997년 출범하여 2002년부터 장관급 협력체로 운영.
- 목적: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지역경제협력을 통해 CAREC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 현재 우선적인 목표는 인프라 건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통, 에너지, 무역정책, 무역촉진' 등 4개 우선 협력 분야의 지역정책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 참여국: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현재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입이 고려 중).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외 다자지역협력이 활성화된 요인

- (1)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 후 역내 문제해결 및 지역통합을 위해 다자 지역협력체를 창설하였거나 또는 역외 차원의 다자 지역협력체에 소연방 구성국으로서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는 점.
- (2) 소연방 붕괴직후 중앙아시아 지역이 '힘의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중앙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역내외 국가들, 즉 미국, 중국, 터키, 이란, EU 등 사이에 힘(power), 패권(hegemony), 경제적 이득(economic profit)를 둘러싼 경쟁이 재현되면서 중앙아시아 끌어안기 및 접근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
- (3) 중앙아시아의 전략 환경, 즉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매장,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이슈의 상존 등도 중앙아시아에서 다자 지역협력을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지역협력에 대한 평가

- o 러시아, 중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해 주도하고 있는 CSTO, EURASEC, SCO 등을 제외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o 중앙아시아 다자지역협력 성공의 저해요인

- (1) 정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권양도 또는 주권을 공유하려 않으며, 상호 신뢰가 부족.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눈에 보이지 않은 역내에서의 패권국가

경쟁은 지역통합 또는 지역협력의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2) 경제적으로, 독립 후 경제체제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수출국과 비수출국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자국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펴왔음.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경제적, 산업구조적 상호보완성이 없으며, 이는 역내 국가들간 경제협력을 촉진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 또한 에너지·자원 수출 경제는 경제·통상 협력의 대상국을 역내 국가들 보다는 역외 국가들로 제한시키고 있음. 수자원의 문제는 단순히 물 문제만이 아닌 전력 등 에너지, 농업용수, 식수 등과 긴밀히 연결된 문제이기에 해결이 쉽지 않음.
- (3) 이외에도 지역협력 주도국가의 부재, 지역협력 추진기간의 일천함, 다양한 다자 지역협력체의 상존에 따른 회원국 및 목적의 중복성, 효과적인 지역협력체 운영을 위한 자원 및 전문 관료 부족 등.

■ 한국의 대응: 한·중앙아 지역 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방안

- (1)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명실상부한 대중중앙아 지역협력 포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2)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대표단장을 점진적으로 격상시키면서 비정치적 이슈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3) SCO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다자 지역협력체에 회원국 참여가 부적절할 경우 한국이 적어도 옵저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4) 한국은 양자협력 확대 및 강화가 지역협력을 강화시키는 토대임을 감안해 중앙아시아 5개국과 양자관계를 더욱 공고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5) 중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 없는 중앙아시아', 수자원 협력, 국제기구 지원 하에 추진하고 있는 CAREC 프로그램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6) EU,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등의 대중중앙아 지역협력 프로그램들을 비교 분석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발제 I-3] 한국-카자흐스탄: 공감적 동반자 관계

김 일 수 (전 주 카자흐스탄 대사)

■ 공감적 동반자 관계

-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는 2009년 이래 공식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고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흔히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부름.
- 현재 한국은 카자흐와 기술, 경험을 나누면서 카자흐의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는 상생을 추구하고 있음. 따라서 양국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인 동시에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존재하는 공감대에 기초한 mutually empathetic relations로 규정해야 한다고 봄.

■ 동행하는 외교, 국제적 활동

- 양국의 지정학적 공감대는 외교 정책의 유사성 면에서 두드러짐. 카자흐스탄의 multi-vector diplomacy는 한국이 추구하는 전 방위 외교를 연상시킴. 양국은 주변의 큰 이웃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면서도 공감을 갖는 우방을 찾아 국제적 지지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중견 국가로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모든 노력에 동참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있음.

■ 경제 발전을 향한 공감대

-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한카 양국은 개방적 시장 경제를 지향함과 동시에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 인적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와 협력, 특히 경제 발전 경험을 나누는 것은 대외 개방과 해외 진출을 통한 경제 발전 철학을 공유하는 두 나라간 공동의 문제를 극복하고 실질적 성과를 얻는 데 있어 의미가 큼.
- 자원의 함정 극복
 - 모든 종류의 천연 자원을 풍부히 갖춘 카자흐스탄이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

구하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Dutch Disease로 대변되는 '자원의 함정'에 빠지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카자흐스탄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카자흐스탄이 시민사회 발전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발전시켜 자원 의존형 경제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신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

○ 에너지 분야에서의 상생 협력

-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에너지 부존 측면에 있어서 양국은 극명히 다른 처지에 있지만 미래의 에너지 개발 방향에 있어서는 일치된 목표를 갖고 있음.
- 한카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단순히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원전이나 신에너지 개발 등으로 그 범위와 규모가 확대 되고 있음
- 특히 카자흐의 에너지 분야 효율성을 증대하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해외 사업 경험을 적용하는 사업들이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것이 주목됨

■ 공감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한 제언

○ 정상간의 정례 회동 전통 확립

- 정치 제도로서 대통령제를 공유하는 양국은 최고위 지도자 간의 교류가 양국간 관계의 긴밀화에 더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음.
- 양국 지도자의 각별한 관심 속에 형성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정상들이 만났을 때 의미 있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각 레벨에 걸친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국민간 교류

- 지도자 간의 교류에 못지않게 장기적인 협력 관계 형성에 중요한 것은 국민간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 간의 교류와 이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양국간 이해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언어. 양국 언어 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서로의 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것은 양국 문화 교류에 큰 강점임.

○ 고려인의 역할

-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양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임. 재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족 화합 정책으로 모범적인 다민족 국가를 영위하고 있음을 한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을 모국으로 그리고 한국을 '역사적 모국'으로 여기고 모국과 역사적 모국의 관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인은 한카 양국 관계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 결어

- 한국·카자흐스탄 양국은 지정학적, 역사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임. 이러한 공감적 동반자 관계를 인해 양국은 공동으로 지향하는 개방적 시장 경제와 번영하는 시민 사회 건설 과정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친구임. 양국 지도자 간의 돈독한 유대, 양국 국민간의 문화적 이해의 잠재력, 상생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양국의 경제 구조는 구체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임.
- 길다고 할 수 없는 수교 관계의 역사 속에 양국은 이미 많은 경험을 공유했고 구체적인 협력의 성과를 이루었음. 그러나 구체적 성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국이 서로를 이해함은 물론, 신뢰할 수 있고, 협력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확인한 점임.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2012년은 양국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현에 옮기는 시점이 될 것임.

|Session I 토론|

■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요건

● 한국측 질문

- 한국-카자흐스탄의 관계는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구체적 과정에 대한 표준적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신문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전략적 특성의 동반자 관계"를 지지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카자흐스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러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 및 합의)와 동일한 것이지요? 카자흐스탄측에서 생각하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카자흐스탄측 답변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시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제 원료 수출 국가로만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자국 공산품 생산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벨로루시-러시아-카자흐스탄 간 관세동맹 체결하였고 앞으로 카자흐스탄-EU 자유경제지역 창설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EURASEC의 회원국이며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외 정책에 있어서 우선은 러시아, 유럽,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정권 변화 및 국제 정세 변화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측 토론

- 한국의 총선이나 대선을 통한 정권변화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중앙아 관계는 정권과 상관없이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 중앙아시아 전략포럼은 이명박 정권 이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중앙아시아가 중요한 이유는 자원, 투자, 무역의 필요성도 있지만 국제정치에서 서로 이해가 비슷한 국가를 찾고자 하는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국제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측 토론

-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소위 미들파워 국가라고들 합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작년에 미들파워 국가들끼리 협력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관계 시스템의 위기, 국제법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양차대전 후 포스트 워싱턴 시스템, 91년 이후 1극 세계로 변화되었으나 현재 미국은 정치, 경제에서 더 이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즉 1극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였고, BRICs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리더십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들파워 국가들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12년 핵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카 양국의 협력

- 2012년 봄 한국이 핵정상회담을 주최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카 양국이 해야할 협력은 무엇이 있는지?
- 작년 4월에 개최된 1차에 이어서 내년 3월에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핵테러에 대한 안보를 주요 이슈로 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역사상 최다의 세계정상들이 서울로 운집할 예정입니다.
- 카자흐스탄은 90년대 초 이미 핵포기를 선언하였고, 2009년 3월 핵 없는 중앙아 지대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정상 초대를 주선해왔습니다. 이를 후에 있을 이번 한카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Session II : 카자흐스탄 산업다변화 문제와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

[발제 II-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카자흐스탄 금융협력 전망

윤 성 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원)

■ 카자흐스탄 경제현황과 전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카자흐스탄 경제는 은행권 채무재조정 성공,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양등,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2010년 7%, 2011년에는 6.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경제안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카자흐스탄의 2011-1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6.9%로 추정하고 있지만 높은 소비자 물가가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0년 4월 무디스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개선을 반영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으로 조정하였고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카자흐스탄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정상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다각화, 경제 현대화,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금융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는 불가피한 상황임.

■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현황

- 카자흐스탄에서는 상위 6개 정부은행이 은행 총자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낮은 저축률 때문에 GDP 대비 예금수신비율이 낮음.
-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의 특징은 금융공기업들이 자산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2010년 3월 현재 KKB가 시중은행 중 자산 약 159억 달러로 1위이

며, 국민은행인 인수한 BCC(Bank Center Credit)는 자산 약 78억 달러로 4 위임. 2011년 4월 기준 약 39개의 시중은행이 영업 중임.

- 2000-2007년까지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은 은행의 자산규모가 연평균 40% 내외의 빠른 성장을 보이며 급격히 팽창하였는데, 주로 해외 차입(전체 자본의 50% 정도)을 통한 대출을 통해 이루어졌음. 카자흐스탄 은행들은 자기 자본과 국내 예금이 부진한 상황에서 높은 예대 마진을 노려 적정 규모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은 국내자본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조달에 의존한 결과 대외부채의 상환압력 고조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였음.
- 2009년, BTA, Alliance Bank, Termir bank, AFB가 달러화 및 유로화 부채 상환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일부 은행은 국유화되었음. 그러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거의 없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규대출 억제, 대외부채 상환 등으로 2009년 카자흐스탄 은행 전체의 총자산은 2008년 대비 28.3% 감소하였음.
- 2009년 카자흐스탄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악화되었는데, 2009년 12월 기준 카자흐스탄 은행의 대출 중 회수의문(추정손실)의 비중은 44%, 부실채권(NPLs) 비중은 36.2% 증가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NIM(순이자마진)이 감소하고 총수익 대비 비지급이자 비용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
- 2010년 4월 기준 카자흐스탄의 은행주의 주가는 최고가를 기록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5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World Economic Forum이 2010년 9월에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 카자흐스탄은 139개 가운데 72위를 기록하였으나, 금융시장 분야는 117위로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음.

- 특히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용이성 106위, 신용대출 용이성 121위, 금융기관의 건전성 131위 등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2010년 이후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유통시장과 소매금융의 발달로 금융부문의 성장잠재력이 기대되고 있음.

■ 한국의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진출현황과 전략

- 2010년 현재 중앙아시아에는 은행, 증권사 등을 다 합쳐 총 7개의 국내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데, 법인형태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영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3개(카자흐스탄 2개, 우즈베키스탄 1개), 증권사 1개(카자흐스탄)이고, 나머지 3곳은 대표사무소 형태(우즈베키스탄 2개 은행, 카자흐스탄 1개 증권사)로 시장조사 및 사업기회 발굴을 통한 본사와의 협업방식의 업무를 주로 펼치고 있음.
- 한국 금융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 시 강점은 경제성장 경험과 외환위기 극복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임.
- 약점과 위협 요인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고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 측면에서 경제규모가 크지 않으며, 현지 정부의 규제와 부패가 심하다는 점임.
- 금융권의 해외 진출 시 보통 신규법인 형태의 진출과 M&A 등 지분참여 등을 통한 진출로 대변됨. 투자 형태별 진출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투자 주체의 성향(공격적, 보수적)과 투자 대상국 시장의 성격(선진시장/이머징 마켓)에 따라 결정됨.
-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소매시장 공략을 통한 효과적인 신규 고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까다로운 설립 규제로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설법인보다는 기존의 법인망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성공률이 더 높은 상황임.
- 한국이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상업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업체들과 중국이 진출하기에 앞서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함.

- 선점전략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업체들은 단기 순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 투자자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상업은행의 Entrepreneurship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이니셔티브(공공 금융 지원, 정책 아젠다 제기, 고위급 회담)와 연구기관 간의 정책 네트워크라는 삼각편대라는 협력 전략이 필요함.

■ 한국-카자흐스탄 금융협력 방안

-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새롭게 닥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비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양국간의 금융협력을 전면화하여 금융산업이 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1) 글로벌 협력
 - 한카 양국 통화의 일정 부분에 대한 통화 스왑 추진
 - 글로벌 및 중앙아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공동개발펀드 추진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헤지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 조치 공조
 - (2)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및 투자
 - 한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 확대 (보험, 리스, 채권 등)
 - 양국 금융기관의 자국화 표시 채권 발행 및 인수
 - 카자흐스탄 주요 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
 - (3) 한국정부의 정책적 과제
 - IT, 기계류, 전자제품, 플랜트 등 카자흐스탄 진출 유망분야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 지원 활성화
 - 플랜트·자원개발 SPC가 발행하는 원화·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수은, 수보의 보증 확대 및 신설
 - 카자흐스탄 고려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 공공금융을 통한 금융협력방안
 - 중앙아시아는 낮은 국민소득과 재정수지 적자 등으로 국제 공공금융의 중요 지원대상으로 ADB, EBRB, World Bank, 그리고 일본, 이슬람, 중국은 차관

- 을 통해 공공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은 ADB 회원국으로 중앙아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무상원조, EDCF를 통해 공공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중앙아시아 개발을 위한 '중앙아시아 개발은행' 설립을 주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자원 및 SOC 등에 공공금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발제 II-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이 상 준 (국민대학교 교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

○ 역사적 경험

- (1) 1929~1933년 대공황
- (2)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의 붕괴
- (3) 경제위기의 교훈
 - 국제준비자산으로서 부상하는 국가의 통화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였고, 보호무역 강화는 경제침체를 가속화하였음.

○ 2008년 금융위기의 특징

- (1) 글로벌 유동성 증대
- (2) 신흥시장과 선진국의 금융공조 체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 (1) 정치의 중요성
 - 모든 경제위기는 정치요인에서 비롯되고 그 해결에 있어서도 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강력한 정치의 힘이 필요함.
- (2) 국가간 무역불균형 해소의 중요성
 - 역사적인 경험에서 경제위기는 각기 다른 패턴으로 성장하는 국가간 무역 불균형으로 기인한 것임.
- (3) 국가간 다른 금융제도로 인한 균열에 보완책의 중요성
 - 과거 서로 다른 금융제도가 접촉하면서 자본 부족국가의 금융제도 기능을 왜곡하는 현상으로 야기된 불안정성이 결국 금융시장의 균열을 촉발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 한국에 끼친 영향과 시사점

- (1) 대외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 극복
 - 한국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는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원천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안정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축

- 불황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계층, 노사,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적인 노력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여 잠재성장기반을 다지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함.

(3) 신 성장 기반 마련

- 금융시장 선진화와 국가위상을 제고하여 수출을 늘리고 제도 개혁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여 장기적인 금융 안정 체제를 갖추어 필요 있음.
- 친환경 성장을 주도하는 그린 & 에코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포스트 교토 체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 있음.

o 카자흐스탄에 끼친 영향과 시사점

(1) 석유 및 자원 가치의 변동성 증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카자흐스탄의 주요한 자본원천인 석유 및 천연자원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외환 관리의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음.

(2) 자원의존형 경제의 자금 관리 중요성

- 천연자원 수출이 국가의 재정 수입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천연자원의 국제시장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자금 관리가 중요함.

(3) 천연자원 이외의 자본축적 수단 확보

- 현대사회에서는 기초요인(자연자원, 인구 규모, 기후, 위치 등)보다 고차적인 요인(교육수준의 인력, 연구개발 능력, 진보된 정보통신, 정부정책 등)이 경제발전에 더욱 중요함.
-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산업혁신 개발 계획(2010-2014)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전략을 통하여 석유화학, 건축자재, 식품가공, 물류, 금속제련, 섬유, 관광 등 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노동생산성 증가를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의 추세

(1) 무역

- 카자흐스탄은 2010년 12월 기준, 한국의 수출대상국 중 68위, 수입대상국 중 58위 국가인데 2009년 수출대상국 중 79위, 수입대상국 중 62위에서 조금씩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엘리베이터, 화학 및 가전제품인 반면에 주요 수입품은 석탄, 아연, 망간 등임.

- 카자흐스탄 경제성장기에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추세임.

(2) 투자

- 카자흐스탄은 독립초기부터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2010년 카자흐스탄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규모는 약 200억 달러 임. CIS 국가 중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연간 GDP의 12% 규모에 도달함.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부동산 및 건설, 광업 분야를 필두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음.(1991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규모는 약 22억불임.)
- 한국의 대(對)카자흐스탄 주요 투자 분야로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를 꼽을 수 있으며 2006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8년 경기 침체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됨.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투자 법령 및 제도, 조세 부문의 개선 등 개혁 조치에 힘입어 2009년부터 한국의 투자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제도화의 중요성

o 경제협력의 제도화

(1) 제도 개선

- 경제성장에 있어서 안보와 정치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경제협력을 위한 각종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2) 국가혁신 분야 협력

- 부패의 규모에 중점을 둔 정책보다는 부패의 질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함.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방해하는 부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카자흐스탄은 영토는 넓은 반면에 인구는 적어 통치비용에서 있어 규모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o 개발협력

(1) 개발은행

- 제도적 위험을 낮추면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라시아 개발은행에 한국이 참여하거나 혹은 한국-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의 설립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

(2) 교육 의료 서비스 협력

-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고차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 자본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의료지원이 필요함.

○ 안정적인 무역체제 구축

- (1) 한국-카자흐스탄 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성
- (2)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지지

■ 양국의 필요에 입각한 협력 필요성: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을 위한 제언

○ 양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협력

(1) 카자흐스탄

- 경제성장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안임. 현재 카자흐스탄은 부존자원의 상대적 우위로 요소추진단계에 있지만 분야별로는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이 궁극적으로 혁신추진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혁신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의 경제협력의 틀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높음.

(2) 한국

-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안정적인 장기투자유입이 필요한데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는 한국의 금융시장 선진화에 중요한 협력자 될 수 있으며 역동적인 한국에서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들인 국제통화협력체제의 개편, DDA조속타결 및 자유무역기조의 유지, 기후변화협약과 포스트 교토 의정서 준비, G20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개발협력 등 다양한 의제에서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필요함.

○ 새로운 협력의제를 지속적으로 개발

- (1) 양국 협력에 필요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2) 앞으로도 양국이 기회를 키우고 위협을 줄이는 양자간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음.

[발제 II-3] 한국-카자흐스탄 무역과 경제관계

Dzhaksaliev B.M.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 차관)

■ 한국-카자흐스탄 투자 교역 협력

- 2010년 양국 교역량은 6억 6420만 달러(수출: 2억 7140달러, 수입: 4억 4680달러) - 이는 2009년 대비 57%나 상승한 수치.
-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카자흐스탄 경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약 1250억 달러. 그 가운데 한국의 투자액은 약 40억 달러 (전체 외국인 투자액 가운데 3.6%를 넘는 수치).
-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혁신 산업 발전 프로젝트
 - 코스타나이 시에서 진행 중인 쌍용차 생산 합작회사
 - 포스코와 UKTMP사 간의 티타늄 슬래브 합작회사
 - 현대 자동차의 소형 트럭 조립생산 합작회사
 -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아트라우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가스화학단지 건설

■ 카자흐스탄 혁신 산업발전 프로젝트

- 카자흐스탄 경제의 최우선 순위 부문에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채택한 프로젝트.
- 주요 목표: 장기적으로 카자흐스탄 경제의 다각화 및 경쟁력 확보, 단기적으로 2014년까지 GDP를 70억 탱게(2008년 GDP의 약 50% 증가)까지 끌어올리는 것.
-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 국가 경제의 최우선 부문의 발전에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자원을 집중
 - 안정적인 거시 경제와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 외국의 투자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키포인트
 -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과 생산성 증대

- 주력 발전 분야 지정: 금속업, 석유가공분야, 화학 및 제약산업, 기계생산, 농업단지조성, 관광, 경공업, 정보통신 및 우주과학, 에너지 분야 등 포함.
- 이 국가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일 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작년 카자흐스탄 가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21억 달러로 2009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7%나 증가한 수치.

■ 산업화 지도 (map of industrialization)

- '2010-2014 국가 주도 긴급 혁신 산업 발전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주요 메커니즘으로써 생산력의 합리적 배치를 위한 '산업화 지도'를 개발.
 - 이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생산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수단.
 - 산업화 지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구상하거나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 카자흐스탄 경제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내외 사업자들을 위한 정보기반의 역할 수행.
 - 민간협력의 원칙 하에서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산업화 지도는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프로젝트도 포함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산업화 지도는 총 469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564억 달러(8조 3000억 텡게)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
 - 이를 진행할 경우 약 14만 1000개(각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16만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진행현황
 - 2010년 이 가운데 152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시작되었고, 2011년 50억 달러 규모(7290억 텡게)의 204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족함으로써 이를 통해 약 2만개 이상의 정규직이 신설.
 - 2011년 시작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 (1) '삼룩 에네르고'사의 차른강 모이낙스키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2)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릭'사의 우젠과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연결하는 신철도 건설 프로젝트

(3) '카자흐스탄 데미르 졸리'사의 쉐트겐-코르가스 철도 건설 프로젝트

■ 분과별 틈새시장

- 카자흐스탄에서 아직 발전하지 못한 제품생산 분야가 가장 가능성이 큼: 현재 80개 이상의 틈새시장 프로젝트가 발표됨. 그 안에 400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의 생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총 규모는 400억 달러 상회.

- 광산·금속산업분야
 - 철금속 분야의 틈새시장으로 특수강 및 특수강 제품 생산, 파이프라인과 고강도 금속, 철합금, 폴리실리콘 생산 분야 등을 들 수 있음.
 - 비철금속 분야의 경우 알루미늄, 아연, 구리 등으로 만든 압연·철강 제품 생산, 희귀금속 생산 시 금 및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정련 등의 분야가 틈새시장으로 유망.
 - 2009년 한 해 동안 광산·금속산업 분야에서 수입된 고부가가치의 철강제품은 58억 달러에 달함. 이 분야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어도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화학제품분야
 - 지난 2009년 화학제품의 수입이 22억 달러를 기록.
 - 유망 분야: 가스 가공제품, 화학비료, 농축소다, 메탄올, 요소와 황산 생산 분야 등. 이를 위해서 최소 6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

- 기계생산분야
 - 외국인 투자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 중 하나.
 - 기계생산 시장의 규모는 2008년 132억 달러에 달했고, 기계생산제품의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85%를 차지.
 - 이 분야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업 기계(트랙터, 콤팩트, 기타 트랙터 부착 장비), 철도관련 장비(여객 및 운송 차량, 고체 압연 휠 세트) 및 자동차(승용차 및 상용차)등.

- 건설산업분야
 - 유망 분야: 평판유리 및 다중유리창, 다양한 세라믹 제품과 현무암 섬유 제품 생산 분야, 그리고 산업 건설 및 클링커 시멘트 터미널 생산단지 조성 등.

(2008년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건설 자재 가운데 43%가 수입)

- 이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6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

■ 기업 지원 프로그램

o 카자흐스탄 정부의 기원 지원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투자 2020», «생산성 2020», «수출 2020» 및 «비즈니스 로드맵 2020» 등

- 목적: 카자흐스탄의 수출업자 및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지원 및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
- 목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위한 호혜로운 환경 조성, 새로운 생산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 카자흐스탄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각 지역별 기업인 활동 지원 등

o 투자유치활동 촉진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방안

- (1) 각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지원 사업
- (2) 현행 카자흐스탄 투자법을 개정하여 특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항을 적용하여 투자자들의 원금 지출의 일부 보상하고, 법안 변경에 대한 보증, 국가 조달권 참가 등의 혜택을 제공
- (3) 새로운 수출중심 생산업 구축을 위한 부가가치세 반환 과정의 완화
- (4)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개방 이민원칙 도입 및 OECD 국가와의 무비자 협정 체결, 그리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과정의 완화
- (5) 외국인 노동자 등록 과정 완화

■ 특별경제구역 및 산업지대

o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안 채택되었음.

- 이는 전 세계 약 50여 개의 현행 경제자유구역 활동의 실례연구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참가자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고 각종 허가 발급 과정을 완화하는 내용 포함.
- 여기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전문 경영 회사를 유치하는 조항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 대변.

- 현재 카자흐스탄은 6개의 특별경제구역과 2개의 산업지대 운영
 - (1) «아스타나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카자흐스탄의 수도에 신 행정센터를 건설 하고자 조성.
 - (2) «Sea Port 악타우»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있는 새로운 경제분과 발전을 위하여 조성.
 - (3) «온투스틱» 경제자유구역: 섬유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조성
 - (4) «국가 산업 석유화학 테크노파크» 경제자유구역: 탄화수소 연료의 가공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생산분야 발전을 위하여 조성.
 - (5) «정보통신 파크» 경제자유구역은 IT분야 발전을 위하여 조성.
 - (6) «부라바이» 자유경제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

■ 관세동맹

-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있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될 것. 카자흐스탄은 역내 기술 허브 구축 및 러시아, 유럽 및 중앙아시아 전역에 수출될 제품의 생산지로써의 모든 조건을 보유.
-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가 참여한 관세동맹이 발효되어, 대 카자흐스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고유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하여 인구 1억 7천만, 총 GDP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역내 대규모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이 되고 있음.
 - 관세동맹의 등장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카자흐스탄 시장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비단 석유 가스나 에너지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 통과 인프라, 농업 및 산업 혁신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 카자흐스탄은 신기술과 지식, 경험 등 가장 가치 있는 분야에서 한국과 장기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 카자흐스탄은 경쟁력 있는 한국의 기술 및 교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 카자흐스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실질적인 결과물로 만드는 것.

[발제 II-4] 한국·카자흐스탄 교역 협력의 전망

Vyacheslav Y. Dodonov (카자흐스탄 전략문제연구소 과학기술관)

■ 한국과 카자흐스탄 교역 협력 관계의 역동성

- 2009년 한카 양국의 연간 교역량은 5억 560만 달러 (수출 1억 3170만 달러, 수입 3억 7380만 달러) ⇨ 2010년 7억 6000만 달러 (수출 2억 3300만 달러, 수입 5억 2700만 달러) - «카즈넥스 인베스트» 국가 수출 투자청의 자료
- 2008~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급격한 감소를 제외하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한카 양국의 교역량은 평균 수출입 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 .
- 양국의 상대국가에 대한 수출량 증가율은 뚜렷한 격차를 보임: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수출 증가는 5.4배 (동기간 전체 수출량 증가율 2.5배) vs. 카자흐스탄의 대 한국 수출 증가는 3.2배 (동기간 전체 수출량 증가율 7.4배) ⇨ 한국은 카자흐스탄 시장에 보다 성공적으로 진입한 반면, 양국 교역에 있어 카자흐스탄은 지난 10년간 매년 적자를 기록.
- 2010년 한국은 카자흐스탄 제품 수입 국가 중 21위(전체의 0.4%)에 그친 반면 한국 제품의 카자흐스탄 수출은 전체 규모 가운데 1.8% 차지하며 10번째 대 카자흐스탄 수출국이 됨.
- 양국 간 교역량 증가의 불균형의 원인
- 한국이 카자흐스탄 제품의 소비시장이 되기엔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위치.
- 현재 카자흐스탄 수출의 3/4이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의 수출을 위한 운송 시스템(송유관, 가스관 등)이 한카 양국 간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양국 간 교역관계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
-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수출 구조 변화 필요성: 금융위기의 여파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내구재 소비력이 여전히 제한받고 있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공산품 생산분야 발전을 위한 대규모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제품 수출보다는 카자흐스탄 내에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 카자흐스탄 경제 구조 선진화 시도

- 카자흐스탄 국가 경제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 2010년 1월 29일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연두교서

- (1) 노동생산성의 복합적인 향상, (2) 산업발전, (3) 국가 식량안보 유지, (4) 수출 잠재력 실현, (5)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혁신 시스템 운영, (6) 단일 경제구역 조성 및 WTO가입과 관세동맹의 틀 내에서 통합 이니셔티브 실현을 포함한 합리적인 교역 정책 시행, (7)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8) 강력한 기업인 계층 형성, (9) 수출업자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설립 등.

- o 카자흐스탄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 거시경제 우선 과제 - 2009년 5월 15일 누르오탄당의 제7차 임시총회에서 대통령 발표
 - (1) 농산업 단지 및 농산품 가공업, (2) 건설 산업 및 건설자재 생산, (3) 석유 가공제품 및 석유가스분야 인프라, (4) 금속업 및 금속 완제품 생산, (5) 화학, 제약 및 방산업, (6) 클린 에너지 포함 에너지발전, (7) 교통 및 정보통신 인프라 등

- o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발전 프로젝트 중 «전략 이니셔티브»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9개
 - (1) 산업혁신발전 전략
 - (2) 카자흐스탄 교통 전략
 - (3) 카자흐스탄 토지발전
 - (4) 카스피해 카자흐스탄 지역 발전 국가 프로그램
 - (5) 2005-2010 카자흐스탄 교육 발전 국가 프로그램
 - (6) 2005-2010 보건 개혁 및 발전 국가 프로그램
 - (7) 2010-2014 카자흐스탄 산업-혁신 발전 국가 프로그램
 - 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 조건으로써 생산주체들의 생산성 강화
 - ② 수출주도형 최첨단 제품 생산 분야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강화
 - ③ 국가 혁신 시스템 발전 및 강화
 - ④ 경제 집중 수준 약화 및 산업화 진행 시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 ⑤ 경제 역량의 효율적 운영 기관 설치
 - (8) 2020 «비즈니스 로드맵» 프로그램
 - (9) 2010-2014 카자흐스탄 산업화 지도

- o 카자흐스탄 경제정책의 주요 전략
 - (1) 원자재 집중 현상을 낮추고 산업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 구조 다변화
 - (2)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투자
 - (3) 국내 경제 성장 지원 및 통과국으로써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인프라 개발

(4) 통합과정 가속화

(5) 국가 경제의 주력 분야 발전(농업, 석유가공, 화학 산업, 금속, 에너지)

■ 한국-카자흐스탄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 및 제언

o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선진 기술 장비 수출의 유망분야

- 에너지 절약장비, 화학, 석유화학, 농업, 재생에너지 원료 생산, 교통 및 정보통신 기기 생산 분야 등.

o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카 협력 분야: 현지화 생산 분야

- 기술 및 기계설비 공급이나 공동 생산설비 분야

- 카자흐스탄 내 한카협력회사(한국 자본 투자): «삼성», «엘지전자», «엘지상사», «에스케이», «현대», «NTC», «리텍스» 등과 «동일 하이빌», «우림», «성원» 및 «현진» 등의 건설회사를 포함하여 총 300개 이상

- 한카비즈니스 포럼을 매개체로 한 합작회사 형태의 협력:

- ①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사와 한국의 «풍산»사 간에 탄약 및 구리 파이프 생산을 위한 합작 회사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
- ② 카자흐스탄의 «제르데»사와 «서울 세미컨덕터»사 간에 카자흐스탄 내에 LED 제품 생산을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계약
- ③ 카자흐스탄의 «국가 투자 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간에 카자흐스탄의 알라타우 IT파크 설계, 전략 및 컨셉 개발에 따른 컨설팅 MOU 체결
- ④ 카자흐스탄 내 자동차 조립 생산에 관한 3자 MOU 체결: 생산 부지를 제공할 «아그로마쉬홀딩 카자흐스탄»사와 쌍용 모터스, 그리고 자동차 그룹인 «알루어 오토»사
- ⑤ «아스타나 모터스»사와 «현대자동차» 간에 체결된 프로젝트 협력 협정: 이에 따라 «아스타나 모터스»는 알마티에서 현대자동차의 소형 트럭 조립 공장을 설립하게 될 예정.

o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수출의 가장 유망한 분야는 기존 합작 회사의 현지화 수준을 확대하고 현지에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설비 및 장비의 공급 분야가 될 것. 이를 통해 수출 및 양국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작회사의 규모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

|Session II 토론|

■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과 WTO가입 문제

● 한국측 질문 :

-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키르기스스탄만 WTO에 가입되어있고 카자흐스탄은 가입을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금년 말까지는 가입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세동맹이 출범하면서 관세동맹에 가입된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세 나라가 동맹차원에서 가입을 추진하자는 움직임도 러시아 정부에서 있었고 최근에 별도로 관세동맹과 상관 없이 개별국 차원에서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어느 시점에 WTO 가입이 추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카자흐스탄이 가입할 경우 한국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교역여건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가입은 한국기업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 카자흐스탄측 답변 :

-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이 존재하였습니다. CIS 차원에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카자흐스탄 경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경제 발전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경제 간 관계에서 출발하였고,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프카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역시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러시아가 주축이 되는 경제권에 묶여 있었는데 탈퇴 이후 통화정책 등과 같은 것들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는 경제적인 여건도 재편되었습니다. 1998년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가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경제위기를 최근 카자흐스탄도 겪으면서 좀 더 독립적이고 다양한 경제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들은 경제 회복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되었습니다.
- 파이프라인의 확대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른 중앙아시아 경제와는 차별화되면서 모든 국가가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동유럽과 같은 나라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

서 카자흐스탄 경제를 둘러싼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WTO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카자흐스탄은 95~6년도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그 당시 카자흐스탄 시장은 개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내 생산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간에 관세동맹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단독으로 WTO에 가입한다면 카자흐스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카자흐스탄과 중국과의 관계

● 한국측 질문 :

- 최근 중국의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 자원협력이 크게 확대됨과 동시에 중국기업들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가 크게 증대되면서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우려할 수준으로 거대하게 커졌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말씀 묻고 싶습니다.

● 카자흐스탄측 답변 :

- 최근 들어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중국은 자원의 보장이 급격히 필요해지면서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 비무장 국경지대를 설정하게 되면서 중국과 새로운 차원의 국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상당한 시장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08년 위기 때에는 카자흐스탄의 금융시스템이 중국은행들로부터 신용을 얻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은행과 전체기업들을 회생시킬 수 있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 석유, 가스수송 석유수송에의 투자보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시아를 통과하는 도로건설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중국의 금융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였습니다.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지배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 추구하고 있고, 이는 카자흐스탄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외국 기업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 투자

● 한국측 질문 :

- 상당히 많은 외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을 꼽을 수 있나요? 그 성공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기업들은 GM대우를 가장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꼽았습니다.

● 카자흐스탄측 답변 :

- 1991년도에 한국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했지만, 그 중 특히 삼성은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입지를 상당부분 일본회사에 내주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인들이 선호하는 차는 대부분 일본차, 특히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 카자흐스탄의 구매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국측에 제안하고 싶은 분야는 관광부문, 그 중에서도 의료관광부문입니다.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부모가 아플 때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한국의 의료계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카자흐스탄에 다수의 메디컬센터 설립을 지원한다면 양국 관계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나 독일로 향했던 의료관광의 발길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Session III : 문화,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전략 협력|

[발제 III-1] 카자흐스탄의 한국 이미지와 양국 발전 방향

엄 구 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한국에 대한 직접 경험

- 한국에 대한 직접 경험은 카자흐스탄이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조사자의 42.3%가 한국사람을 만난경험, 11.9%의 조사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험
 - 카자흐스탄은 직접 만난경험은 7.3%, 방문 경험은 1.9%
- 한국에 대한 간접경험도 다른 정도로 나타남
 - 카자흐스탄은 한국음악은 13.6%, 드라마와 영화는 30%, 우즈베키스탄은 드라마의 경우 70%로 매우 높고 영화와 음악도 각각 40%와 30%가 경험

■ 진출한 기업에 대한 인지도

- 카자흐스탄의 경우 삼성(98.9%), 도요타(98.8%), LG(98%), 소니(97%), 현대(88.7%), 대우86.1%로 기업인지도가 나타남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대우(92.0%), 삼성(85.0%), 소니(84.4%), LG(83.2%) 순으로 높은 인지도가 나타남
- 카자흐스탄에서 삼성을 한국기업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80.9%로 도요타의 그것(88%)에 비해 낮으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대우를 한국 기업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89.9%로 높게 나타남

■ 한국에 대한 접촉경로

- 카자흐스탄 응답자의 21.7%가 TV 보도를 통해, 17.2%가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접함
- 우즈베키스탄은 드라마(54.0%), 이웃·동료·친구들과의 대화(30.7%) 그리고

TV 보도(26.2%), 인터넷(24.1%) 등의 순서

■ 한국에 대한 정보

- 전반적으로 한국출신 지도자나 유명인사에 대해 낮은 인지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더 높은 인식
-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카자흐스탄은 약 70%,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85% 정도의 호감도를 보이거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호감도를 나타냄
- 양국 모두에서 일본, 중국, 북한 등과 비교했을때 한국사람의 유능성, 정직성, 신뢰성, 이기심 등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함
- 이같은 결과는 기업 및 정부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나 카자흐스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긍정적 평가
- 국가간 호감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서구권 국가들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서구권 국가들보다는 한국에 좀 더 친화력

■ 한국과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 양국 모두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가장 필요한 협력 분야라고 인식
 - 카자흐스탄은 자원개발협력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인식,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개발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인식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분야별 교류협력 필요성 정도는 양국에서 다르게 나타남
 - 안보협력의 경우 카자흐스탄에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 필요성이 매우 낮게(3.7%) 나타났으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매우 높게(22.3%) 나타남
 - 경제협력 필요성은 카자흐스탄에서는 13.5%로 러시아, 일본 다음으로 나타났으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장 높은 경제협력 필요성이 있는 국가로 한국(35.3%)을 선택
 - 대중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이 16.1%, 우즈베키스탄은 36.4%로 한국을 선택

- 자원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러시아 다음으로(26.9%) 한국을 선택

■ 한국과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 카자흐스탄의 경우 65.2%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전체 응답자들 중에 79.5%가 미래에 한국을 방문할 의향을 보임
 - 카자흐스탄은 96.2%가 관광, 취업이 8.4%, 5.2%가 유학 목적으로 응답
 - 우즈베키스탄은 63.8%가 관광 목적, 취업 20.0%, 유학 11.6%로 응답
- 한국제품 구매의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 카자흐스탄의 경우 자동차, 의류, 전자제품 등의 순으로 구매의향을 보임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전자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에 대한 정보 습득의향에 있어서는 카자흐스탄인은 관광/여행/레저, 우즈베키스탄인은 역사에 가장 관심을 보임
 - 카자흐스탄은 관광/여행/레저(32.2%), 문화/예술(22.5%), 상품/서비스(21.2%) 순으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역사(23.6%), 문화/예술(20.5%), 관광/여행/레저(19.5%) 등의 순으로 선호

■ 결론

-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대외경제교류에서의 비중이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보다 크기 때문
 - 또한 카자흐스탄이 전문조사기관인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국영연구기관이고 조사지역이 비교적 한국에 대해 많이 아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임
- 한국의 제품에 대한 경험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드라마 등 문화적 통로를 통한 한국에 대한 경험은 기대보다 낮게 나타남
 -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90%,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55%가 한국 제품 사용 경험이 있다 응답

- 한국 기업과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고 긍정적으로 나타남
 - 양국 모두에서 삼성, 대우, 현대, LG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수준
 - 두 국가의 전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한국의 위상을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은 경제선진국으로 인식
 - 하지만 카자흐스탄 응답자의 34%가 한국에서의 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점에 주목해야함
 - 양국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관련 있음

-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경제협력교류 증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경제교류 협력 증진이라는 필요성을 반영해 경제교류 증진 속에 자원협력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전략이 중요

- 국가 이미지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동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
 - 기업의 활동이 동지역에서 이익추구보다는 공익증진이라는 이미지로 비추어 지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

- IT 기술 및 소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문화적 접근법도 필요
 - 이를 통한 동지역에서의 한국의 선진적 이미지 창출을 통해 경제협력을 활성화 하는 기반으로 삼는 전략

- 정부간, 대학간 협력을 통한 문화교류도 확대되어야 함

[발제 III-2] 한국에서 카자흐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손 영 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교육의 현황과 발전

- 한-카 수교 이후 활발한 경제 교류 및 협력이 강화로 고등교육기관에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의 기본적 이해를 위한 교양과목들이 개설되기 시작
- 현재 3개 대학에서 카자흐스탄어를 교육중에 있음
 -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카자흐어 교육은 2004년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어과에서 시작
 - 2007년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는 2년을 주기로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를 교육
 - 강남대학교도 2005년부터 국제지역학부에 카자흐스탄학 전공을 개설하여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카자흐인 교수가 카자흐어를 담당
- 하지만 카자흐어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그 보급 상황과 규모는 극히 제한적

■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카자흐어 교육 현황과 성과

-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어과는 설립 초기부터 상당히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임
 - 이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중앙아시아어과는 1-2학년 과정에서 카자흐어 습득에 일차적 중요성을 부여, 3-4학년 과정에서는 카자흐어의 언어학적 지식 심화를 중심
 - 1~2학년 과정에서 카자흐어의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등의 문법을 체계적으로 습득
 - 3~4학년 과정에서는 카자흐어 심화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수업을 진행
- 카자흐스탄 대학들과 연계한 교환학생 및 장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실시
 - 카자흐스탄의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카자흐 아블라이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Kazakh Ablai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및

카자흐스탄 경제경영대학(KIMEP)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 중앙아시아어과 졸업생들은 2008년부터 배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
 -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업과 정부기관에 취업하여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교역 및 협력 사업에 종사
- 한국에서 카자흐어 교육환경도 점차로 개선
 - 카자흐어를 교육하는 모든 대학교에 현지 카자흐인 교수를 초빙
 - 인터넷을 통한 카자흐어 교육 사이트, 대중매체, 영화 등 카자흐어를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가 확대
 - 공인 카자흐어 측정 시험 FLEX 카자흐어 3 set 완성

■ 카자흐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 한국어로된 카자흐어 학습교재의 발간 필요
 -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한국어로된 카자흐어 교재의 발간 필요성이 있음
 - 발음, 회화, 작문, 문법 등이 망라되어 있는 종합적 언어 교재가 되어야 하며 특히 언어 습득과 더불어 카자흐스탄의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필요
- 카자흐어 학습자의 경쟁력 강화.
 - 문어체 중심의 교육에서 구어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실용적 언어 교육으로 전환 필요성이 대두
- 카자흐 언어문화의 종합적 교육과 한-카 문화센터의 설립
 - 언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회의 문화적인 상황을 알아야함
- 카자흐어의 실용성 문제
 -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어의 실용적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제로 강제하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어의 실제적 사용을 유도 필요성이 있음
- 카자흐스탄 국비유학 프로그램의 도입
 -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자흐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유학생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발제 III-3] 한국-카자흐스탄 교육협력의 현황 및 전망

Murat K. Orunkhanov (교육부 차관)

- 한국-카자흐스탄 교육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 정상 회담을 통해 조성
 - 한카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법적 기반이 된 문서는 1995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체결된 «한카 양국관계 및 협력의 주요 원칙에 관한 선언서» - 문화 및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기존에 체결된 문화 협력 협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제2차 방한기간 중 «카자흐스탄 교육 과학부와 한국의 교육 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교육 협력 프로그램» 채택
 -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양국 간 교육 협력이 진행되어옴.
 - 다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시스템의 전 단계를 포괄하고 있음.

■ 한국-카자흐스탄의 교육 협력의 현황

- 교육협력에 있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중등 필수 교육기관과 고등학습기관(대학교) 레벨에서의 대표적인 교육 협력 형태
 - (1) 학부, 석사, 박사생 및 교사, 연구원 교환 프로그램 참
 - (2) 공동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및 기타 행사 개최
 - (3) 해외 명사 초청 강연(혹은 강연활동 교류), 한국 자원봉사자 지원활동
 - (4) «볼라샷»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학 및 석박사 과정의 국제프로그램 참여
 - (5) 교육 장학금 및 지원금 제공(한국학과에 기술, 장비 지원 포함)
 - 카자흐스탄 중등 필수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협력 활동
 - (1) 한국어 교실에 기술, 장비 지원
 - (2) 한국어 교사 수준 향상
 - (3) 한국어 전공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에 따른 지원 포함), 한국어 교사 재정 지원
 - (4) 한국 자원봉사자 활동
 - (5) 학생 교류
- ☞ 이와 같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교육 협력은 전통적인 형태, 즉 학술회의나 공동연구, 공동논문발표, 언어연수 등의 형태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내

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로 인식되는 국제 장학금, 관련 국제대회의 상금 수여 및 지원금 혜택 등의 형태로 진행

■ 대학 간 교류: 가장 활발한 교류협력성과

○ 교류협력의 역사

- 90년대 초 카자흐스탄의 주요 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되면서 한카 대학간 교류 시작
-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기간 동안 양국 교육 협력의 질적, 양적 변화: 2004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중앙아시아어과 설립되어 카작어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과목들이 개설됨

○ 학생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학

-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아블라이하나 카자흐스탄 외국어대학, 아바이 카자흐스탄 사범대학
-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동방학부 내, 그리고 카자흐스탄 외국어 대학 산하에 한국연구센터의 존재는 카자흐스탄 내 한국학 발전에 크게 기여

○ 교환학생 프로그램

- 키렘대학과 한국대학간 학점교류 프로그램, 리스쿨로바 카자흐스탄 경제대학과 한국 호서대학 간 이중 석사학위 프로그램, 카자흐스탄 국립대와 강남대학 간 이중 학위 프로그램 등.
- 문제점: 학업과정 및 프로그램, 교수방식, 성적 채점, 점수 인증 방식을 동일화 해야 하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고 공동 학위 발급 및 학생과 교사들의 원활한 교류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불라삭» 국제 프로그램에 따른 협력

- 영미권, 유럽, 러시아 대학들보다 한국의 대학이 카자흐스탄 학생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유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개선책: (1) 카자흐스탄 학생들의 한국 유학 시 선호되는 전공, 즉 한국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기계 설비, 장비생산, 정보통신, 화학 산업 등의 전공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 (2)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한국 및 한국에서의 유학과정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 필요, (3) 한국에서도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 유학과정에 대한 홍보 필요

○ 카자흐스탄 내 한국기관들의 장학활동

- 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학 아카데미 등의 장학기금의 활동: 카자흐스탄의 학계 및 학술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학술대회 진행, 학술연구 공동발표, 한국어 교사 언어연수, 한국인 교수 연수, 한국학과에 대한 재정 및 장비 지원 등
- 한국교육원의 활동: 한국어 교육,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학생 교류시 양국 교육기관간의 협력 도모, 다양한 학술교육 및 문화 행사 진행 등.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전액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전통 악기나 태권도도 배울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활동:
 - (1) 다양한 전문가, 연구원 및 공무원을 초대하여 경험 및 기술 교류 (학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인원수는 600명 이상으로 1년에 평균 45명에서 55명의 인원이 참가) - 통관 관리, 중소기업 발전, 인터넷 교육, 전자정부, 경영진 양성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등
 - (2) 코이카 자원봉사자들이 카자흐스탄의 여러 도시에서 한국어 교육 봉사
 - (3)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 카자흐스탄 공대 산하 정보통신기술 교육센터 설립 - 카자흐스탄 내 IT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센터의 건설과 내부 장비 설치를 위해 한국 측에서 3백만 달러 지원

■ 한국-카자흐스탄 교육 협력 발전을 위한 제언

○ 카자흐스탄 내 한국-카자흐스탄 대학 설립 제안

- 현재 성공리에 운영 중인 카자흐스탄-영국 대학과 카자흐스탄-미국 대학이 그 모범 사례
- 카자흐스탄-터키 중등학교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협력학교 설립도 고려 가능: 카작어,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의 동시교육도 가능할 것

○ 전문기술 교육 분야의 협력 (대학 차원의 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강화

- 현재 이 분야의 협력은 아직까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주로 에너지, 원자력 산업, 건설, 금융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볼라샹»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카작의 젊은 인재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향후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

[발제 III-4] 카자흐스탄 내 한국 이미지의 사회연구 결과 및 그 개선방안
Botagoz Rakisheva (카자흐스탄 사회정치연구원 원장)

■ 카자흐스탄 대중 이미지 속의 현대 한국의 모습 분석 연구

- «카자흐스탄과 한국: 외교관계 수립부터 전략 파트너십까지»라는 한카 국제 학술대회발제를 위한 설문조사연구
 - 카자흐스탄 전역의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10년에 전화설문 실시
 - 도시민: 55%, 시골주민: 45%
 - 남자: 45.8%, 여자: 54.2%
 - 18~19세: 27.4%, 30~45세: 35%, 46~60세: 26%, 61세 이상: 11.6%
 - 카자흐스탄인: 58.7%, 러시아인: 28.2%, 기타 민족: 13.1%

■ 질문1: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답변)

답 변	비율 (%)
질 좋은 전자제품	52.1
자동차 생산국	33.7
텔레비전 드라마	17.6
전통 음식	17.1
옷	8.0
의료	5.9
정치적 이견	1.5
문화	0.5
고려인	0.4
분단국	0.3
1대1 대결	0.2
모르겠음	11.9

-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가정에 삼성, 엘지, 대우 상표의 가전제품 보유
- 주목할 것은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높은 인지도

■ 질문2: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가? (선다형)

답 변	비율 (%)
영화, 극장, 배우, 감독	25.9
전통 음식	25.0
고유한 자연환경, 지리적 위치와 특성	21.8
명승고적	18.1
«한국 경제의 기적»	16.4
전통 문화(노래, 춤, 제례, 의복)	13.7
한국 국민들	11.6
스포츠 분야의 업적, 운동선수들과 스포츠 행사들	10.9
노래, 작곡가, 가수	8.1
큰 관심을 느끼지 않는다	22.3
모르겠음	13.6

■ 질문3: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가? (주관식)

답 변	비율 (%)
러시아	74.1
터키	22.2
카자흐스탄	16.8
미국	11.7
브라질	10.3
한국	9.0
멕시코	4.1
아르헨티나	1.7
인도	0.3
이탈리아	0.1
모르겠음	5.0

- 2010년에 행해진 설문조사 후 카자흐스탄 TV채널에서 방송되는 한국 드라마의 수가 크게 증가했기에 2011년 현재의 수치는 다를 수 있음

■ 질문4: 어떤 분야에서 한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까? (선다형)

답 변	비율 (%)
경제교역	59.8
정치	23.4
보건	21.5
문화	17.7
교육	9.5
모든 분야	0.3
여행	0.3
모르겠음	14.2

■ 질문5: 다음 중 어떤 채널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까? (선다형)

답 변	비율 (%)
텔레비전	64.7
신문, 잡지	30.1
인터넷	19.3
라디오	17.3
친지를 통해	13.5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1.7
정보가 전혀 없다	12.3
일터에서	0.3
모르겠음	6.3

■ 질문6: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개인적인 시각은? 긍정 또는 부정 (선다형)

답 변	비율 (%)
-----	--------

매우 좋다	34.8
좋다	42.0
나쁘다	3.5
매우 나쁘다	2.4
모르겠음	17.3

- 대다수인 76.8%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한국에 긍정적인 이미지 표시
-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상당 부분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음

■ 질문7: 카자흐스탄 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주관식)

- (1) 문화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 정보 확대가 필요하다
- (3) 한카 교역관계 발전
- (4) 관광 개발
- (5) 카자흐스탄에 한국의 경험 도입(의료를 포함한 신기술)
- (6) 무비자 협정 혹은 비자발급완화
- (7) 교육 분야에서의 한국 경험 도입 등

■ 사회정치연구원이 진행하는 국가이미지 프로젝트 «카자흐스탄인의 눈에 비친 한국 이미지와 한국인의 눈에 비친 카자흐스탄의 이미지»의 연구과제

- 사회정치 및 문화 발전, 나아가 사회 및 양국 국민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을 분석
- 카자흐스탄 내 한국, 혹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원천 분석(대중매체, 영화, 책, 여행, 사람들과의 교류)
- 현재의 양국 이미지의 긍정 혹은 부정적 측면 분석
- 긍정적인 국가 대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요건 분석
- 카자흐스탄내 한국 혹은 한국내 카자흐스탄의 긍정적인 국가브랜드 정착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 분석 및 그 극복 방법 연구
- 국가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카자흐스탄 내 한국 혹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 기관의 역할 평가

|Session III 토론|

■ 카자흐스탄 국민과 한국민 간 문화적 가치의 유사성

● 카자흐스탄측 질문

- 국가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민의 가치관 및 문화적 성격에 있어서 한국과의 유사성 또는 근접성이 발견되었는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것인지요?

● 한국측 답변

- 오늘 저의 발표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한국민의 가치관 또는 국민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국민성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신생독립국으로서 독립 이후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나가는 과정에 있기에 이 관점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국민성은 세 가지, 즉 첫 번째는 카자흐의 전통적 가치, 두 번째는 소비에트에 유산으로 생긴 가치관, 세 번째는 이슬람종교에 의해서 생긴 가치관 그렇게 3가지의 방향으로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제가 연구한 심층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 국민들에 있어서 이슬람 정체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을 공유하는 터키보다도,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과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 소비에트적인 가치관도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적 가치관은 개인보다도 집단을 우선하고 개인발전보다도 국가발전을 우선시하는데 반해 현재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있어 이러한 성향은 많이 약화됐습니다.
 - (3) 중앙아시아의 특성상 민족 구성이나 언어에 있어 국가 간 구분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전통적인 근본주의도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새로운 신민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가족을 중시하고, 또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한국보다도 더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국민 사이에는 전통성을 강조한다는 유사성, 즉 가족을 중시하고 혈통을 중시하는 그러한 전통성을 잘 보존하는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측 토론

- 카자흐스탄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과거에 소비에트적인 가치가 있었고 지금도 나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자유주의적 경제제도와 함께 시장주의적 가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 현대 카자흐스탄에서 과거 소비에트 집단주의 대신 개인주의가 점차 그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습니다만,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독립 이후 정체성의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가족이나 전통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불리한 환경을 축복으로 바꾼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그로 인한 역경들을 당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경제강대국들 속에 위치함으로써 이들과 경쟁하려는 의식이 부지불식간에 심어짐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경쟁력은 평등의식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신분사회였지만 근대 격동기를 거치면서 사회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수단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 역시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카자흐스탄측 질문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동일한 설문조사를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로 확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한국측 답변

- 한국에는 국가브랜드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입니다. Soft Power에 기반을 둔 공공외교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 교육 협력 문제

● 한국측 질문

- 카자흐스탄의 «볼라샷» 프로그램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공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석하게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카자흐스탄 학생들의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대학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많은 카자흐스탄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카자흐스탄측 답변

- 실제로 아주 적은 (12명 정도)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엔지니어링 IT 컴퓨터 사이언스 부문에서 한국으로 유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라샷» 프로그램을 통한 유학생 파견은 해외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려하고 카자흐스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산업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부문 중 우선시 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카자흐스탄에서는 독특한 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난 후 일정 퍼블리케이션을 갖게 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독특하게 최소한 일곱 개 논문을 게재해야 하고 그 중 하나는 SCI급 저널에 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지도교수와 해외에서 초청된 지도교수 등 두 명의 지도교수에 의해서 지도받습니다. 박사과정과 관련된 해외 파트너십은 한국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III. 행사 개요

1. 취지 및 목적

- 《한국-카자흐스탄 포럼》(이하 ‘한카 포럼’)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정부, 의회, 재계, 학계, 과학·기술계, 사회·문화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고위 지도급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서
- 한국-카자흐스탄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호간 진솔하고 개방적인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서 상호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정부 및 주요 유관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각계 고위 인사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관기관

- 한국 측: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 달 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 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엄 구 호)
- 카자흐스탄 측: PDP Nur Otan당 (제1부총재 Nurlan Z. Nigmatulin)
대통령 산하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Bulat K. Sultanov)

3. 지원기관

- 한국 측: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카자흐스탄측: 카자흐스탄 누르오타당

4. 진행

- 개최일시: 2011년 8월 23일(화)
- 개최장소: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누르오타당 중앙당사
- 주제: “한국-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기본 방향 및 실행 메커니즘”
- 회의진행:
 - 각 세션 의제에 대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측에서 각각 1~3인 주제발표 (각 발표 10~15분 내외) 후 참가자간 자유토론
 - 회의 언어: 한국어 및 러시아어 (동시통역 제공)

5. 프로그램

8월 22일(월) - 제 1 일

- 20:55 한국 대표단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 도착
21:30 한국 대표단 호텔 Check-in: 아스타나 Radisson SAS
22:00 한국 대표단 대표 초청 만찬

8월 23일(화) - 제 2 일

09:20-10:00 개회식

- 개회사
- **Nurlan Z. Nigmatulin** (카자흐스탄 누르오탄 당 제1부총재)
 - 김 달 중 (서울국제포럼 회장)
- 축사
- **Sarybai K. S.** (카자흐스탄 외교부 차관)
 - 황 진 하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10:00-10:30 Coffee Break

10:30-12:30 Session I

한국·카자흐스탄 외교정책의 전략적 협력

사회 **Erman M. T.** (누르오탄당 부국장)

김 달 중 (서울국제포럼 회장)

카작측 : **Sultanov Bulat K.** (카자흐스탄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카자흐스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서의 협력 방안"

한국측 : 고 재 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중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대응"

김 일 수 (前 駐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

"한국-카자흐스탄 : 공감적 동반자 관계"

12:30-14:00 오찬

14:00-16:00 Session II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문제와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사 회 : 엄 구 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Sultanov Bulat K. (카자흐스탄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카작측 : **Dzhaksaliev B. M.**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 차관)

"한국-카자흐스탄 무역과 경제관계"

Dodonov V. Y. (카자흐스탄 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카자흐스탄 교역 협력의 전망"

한국측 : 윤 성 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카자흐스탄 금융협력 전망"

이 상 준 (국민대학교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협력"

16:00-16:30 Coffee Break

16:30-18:30 Session III

문화·교육·보건 분야에서의 한국·카자흐스탄 협력

사 회 : 김 일 수 (前 駐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

Baikadamov B. K. (누르오탄당 의회발전연구소 소장)

카작측 : **Orunkhanov M. K.** (카자흐스탄 교육부 차관)

"한국-카자흐스탄 교육협력의 현황 및 전망"

Rakisheva B. (카자흐스탄 사회정치연구원장)

"카자흐스탄 내 한국 이미지의 사회연구 결과 및 그 개선방안"

한국측 : 엄 구 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카자흐스탄의 한국 이미지와 양국 발전 방향"
손 영 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한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18:30-17:00 **Wrap Up & Closing**

17:00-19:00 Dinner

8월 24일(tn) - 제 3 일

10:00 한국 대표단 호텔 Check-out
10:00-12:30 아스타나 시내 투어
12:30-14:00 오찬
14:00-18:30 아스타나 시내 투어
22:45 한국 대표단 출국

6. 참가자 명단

가. 한국측

- 황 진 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 김 달 중 서울국제포럼 회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엄 구 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김 일 수 前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
- 고 재 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이 상 준 국민대학교 교수
- 손 영 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 윤 성 학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초청연구원
- 김 종 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 성 종 환 한리 동시통역사

나. 카자흐스탄측 참가자

- Nigmatulin Nulan Z. 누르오탄 당 제1부총재
- Sarybai K. S. 외교부 차관
- Dzhaksaliev B. M. 산업신기술부 차관
- Orunkhanov M. K. 교육과학부 차관
- Tskhai Y. A. 카자흐스탄 상원의원
- Sultanov B. K. 카자흐스탄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Dodonov V. Y. 카자흐스탄 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Gromov S. N. 누르오탄 당 Secretary

- **Erman M. T.** 누르오탄 당 부국장
- **Baikadamov B. K.** 누르오탄 당 의회연구소 소장
- **Rakisheva B.** 카자흐스탄 사회정치연구원장
- **Zhakenov B. O.** 누르오탄 당 중앙당 비서실장
- **Sakhiyev S. K.** 누르오탄 당 국제국장
- **Bekbanova Z. R.** 누르오탄 당 중앙당사 언론홍보실장
- **Rakhimzhanov A. M.** 누르오탄 당 아스타나 지부 부지부장
- **Karin E. T.** 누르오탄 당 Secretary
- **Uruzgulov R. K.** 누르오탄 당 Secretary

7. 한카포럼 사무국

■ 사무국장

엄 구 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기획운영팀

정 세 진 (한양대학교 HK 교수)

현 승 수 (한양대학교 HK 연구교수)

김 종 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 통번역팀

성 종 환 (한러 통역사: 포럼 동시통역)

김 나 자 (한러 통역사: 포럼 동시통역)

■ 행정지원팀

이 정 선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원, 카자흐스탄 연락 담당)

윤 수 영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원, 편집 및 출판 담당)

박 수 영 (한양대학교 교직원, 회계 담당)

■ Contact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2층

Tel: 02-2220-1494

Fax: 02-2295-3607

E-mail: aprc@hanyang.ac.kr